

비셰그라드를 공략하라

- 중부유럽에서 펼쳐지는 한·중·일 삼국지 -



목 차

요 약

I. 비셰그라드 그룹

- 2 | 1. 비셰그라드 개관
- 3 | 2. 회원국별 경제현황

II. 폴란드

- 11 | 1. 투자환경 및 소비동향
- 15 | 2. 한·중·일 진출동향 비교
- 21 | 3. 유망산업 및 참고사항

III. 헝가리

- 25 | 1. 투자환경 및 소비동향
- 31 | 2. 한·중·일 진출동향 비교
- 36 | 3. 유망산업 및 참고사항

IV. 체코

- 39 | 1. 투자환경 및 소비동향
- 43 | 2. 한·중·일 진출동향 비교
- 48 | 3. 유망산업 및 참고사항

V. 슬로바키아

- 50 | 1. 투자환경 및 소비동향
- 53 | 2. 한·중·일 진출동향 비교
- 56 | 3. 유망산업 및 참고사항

요 약

중부유럽 4개국(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협의체인 비셰그라드 (Visegrád) 그룹이 아시아와 교역을 확대하는 이른바 '동방정책(Opening to the East)'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1991년 설립된 동 그룹의 회원국들은 서유럽 시장을 겨냥한 생산기지 역할을 하며 2004년 유럽연합(EU) 가입 이후 눈부신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조건, 사통팔달의 교통망 등 유리한 물류 여건과 우수한 노동력에 비해 낮은 임금수준을 잘 활용한 결과로 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소비시장으로서의 매력도 점차 상승하고 있다. 1인당 소득수준, 소비심리 등 관련 지표들은 재정위기 이후에도 구매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가격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많으며 한국제품의 인지도가 점차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중·일 3국은 비셰그라드 그룹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먼저 일본은 아시아 최대의 투자규모를 기록하며 전자, 금융, 화학, 유통 등 다양한 산업에 걸쳐 진출해 있다. 또한 현지 지역 본부를 설립하여 유럽진출의 거점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 돋보인다. 중국의 경우 후발주자로 분류되나 2012년 중·동부 유럽과의 정상회담 이후 강력한 협력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폴란드를 중심으로 EU 기금 프로젝트가 활성화되면서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 투자 중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자동차 제조업 부문 진출에 치우쳐 있고 정부 간 교류도 아직 활발하지 못해 경쟁국 대비 열세에 처한 것이 사실이다.

올 들어 유럽이 재정위기에서 점차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되살아나는 유럽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비셰그라드 지역에 교두보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올해 최초로 개최된 한-비셰그라드 외교장관회의는 상호 교류증진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기업 간 다각적인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중국, 일본의 진출동향을 주시하면서 우리의 진출 전략을 새로이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비셰그라드 그룹

1. 비셰그라드 개관

□ 비셰그라드 그룹 개요

○ 비셰그라드란?

- 비셰그라드 그룹(Visegrád Group)은 중·동부유럽 4개국 협의체로 1991년 2월 헝가리 비셰그라드에서 개최된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3국간¹⁾ 정상회담 시 창설됨.
- 회원국들은 경제, 외교, 안보, 문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4년 EU 가입 이후 본격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중부 유럽의 주요국으로 자리매김함.
- 매년 순차적으로 의장국을 맡아 연례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비셰그라드 펀드를 통해 역내 공동발전을 추구하고 있음.
 - * 비셰그라드 펀드(Visegrad Fund) : 역내 문화·과학·교육 협력사업 지원을 위해 회원국들이 공동 조성한 기금으로 2014년 예산은 800만 유로 규모

○ 아시아 중심의 동방정책 추진

- 최근 비셰그라드 국가들은 EU에 대한 과도한 경제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한·중·일 등 아시아 국가와의 교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특히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2010년 집권 이후 이른바 '동방 정책(Opening to the East)'을 전면에 내세우고 추진 중
 - * 동방정책의 핵심은 공동 무역사무소 개설,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통한 아시아 시장진출 모색 등
- 우리나라도 2014년 7월 한-비셰그라드 외교장관회의를 최초로 개최함에 따라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1) 이후 1993년 체코슬로바키아가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되면서 4개국 협의체로 구성됨.

2. 회원국별 경제현황

가. 폴란드

□ 경기동향

○ 성장률

- 2013년 4분기 GDP는 전년동기 대비 2.2% 증가했으며 2014년에도 2.9%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추진으로 인한 정부지출 및 투자 확대, 고용시장 활성화 덕분에 산업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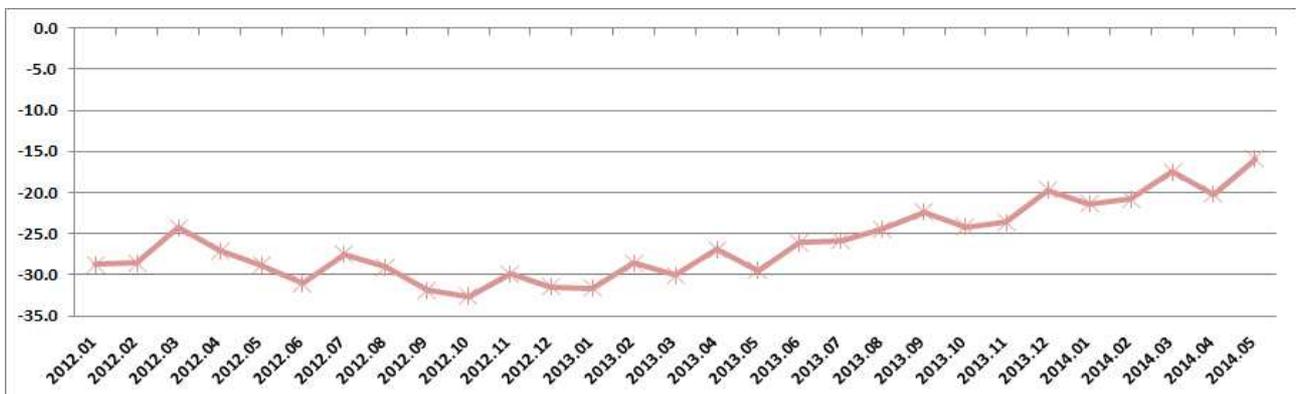
○ 실업률

- EU 기금 프로젝트 및 경기부양 정책으로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됨에 따라 고용시장은 다소 회복될 전망
- 2013년 실업률은 13.5%를 기록했으며 2014년에는 물류,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하여 소폭 개선이 예상됨.

○ 민간소비

- 2014년 5월 소비자신뢰지수(CCI)²⁾는 -15.9로 전년동기(-29.5) 대비 46.1% 상승했으며 고용시장이 살아나면서 민간소비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됨.

<폴란드 소비자신뢰지수 추이>



자료원: Eurostat

2) 소비자신뢰지수(Consumer Confidence Indicator)가 기준치인 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소비자가 낙관적으로 보는 소비자보다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함.

○ 대외무역

- 유럽지역 경기회복으로 EU 회원국과의 교역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즈워티화 약세로 인해 전반적인 수출 증가가 예상됨.

* 즈워티/유로 평균환율은 (2011년) 4.12 → (2012년) 4.13 → (2013년) 4.20으로 꾸준히 상승

○ 기업투자

- 폴란드는 EU 기금(2014~2020년) 최대 수혜국으로 도로, IT 인프라, R&D 등 투자 프로젝트 진행에 따라 민간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

○ 외국인 직접투자

- 유로존 재정위기에 따라 투자 규모가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외국인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유럽의 경기가 점차 회복되면서 자금유입 활성화가 기대됨.

- UN 무역개발협의회(UNCTAD) 보고서³⁾에 따르면 폴란드는 향후 3년간 주요 투자국 순위에서 세계 14위, 유럽 내 3위를 기록

<폴란드 주요 경제지표>

(단위: 백만 유로,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1분기
GDP 규모	354,616	370,851	381,480	389,695	100,742
경제성장률	3.9	4.5	2.0	1.6	1.1
실업률	9.7	9.7	10.1	10.3	9.8*
물가상승률	2.7	3.9	3.7	0.8	0.5*
수출액	120,483	135,558	144,282	152,133	48,878
수입액	134,306	151,291	154,934	154,436	46,154

자료원: Eurostat

*주: 실업률은 2014년 5월, 물가상승률은 6월 기준

3) World Investment Report 2013

나. 헝가리

□ 경기동향

○ 성장률

- 2012년에는 마이너스 성장(-1.7%)을 기록했으나 2013년 4분기 성장률(2.7%)이 7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는 등 최근 제조업, 농업, 건설업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나타냄.
- 2014년에는 유로존,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소비와 투자증가로 이어져 전년(1.1%)의 2배 수준인 2%대 성장이 예상됨.

○ 대외무역

- 서유럽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으므로 2014년 EU 경기의 회복세가 수출 증가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금리인하로 포트폴리오가 평가절하되면서 對서유럽 수출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 헝가리 기준금리는 7월 현재 2.1%로 2012년 8월(7.0%)이후 4.9%p 인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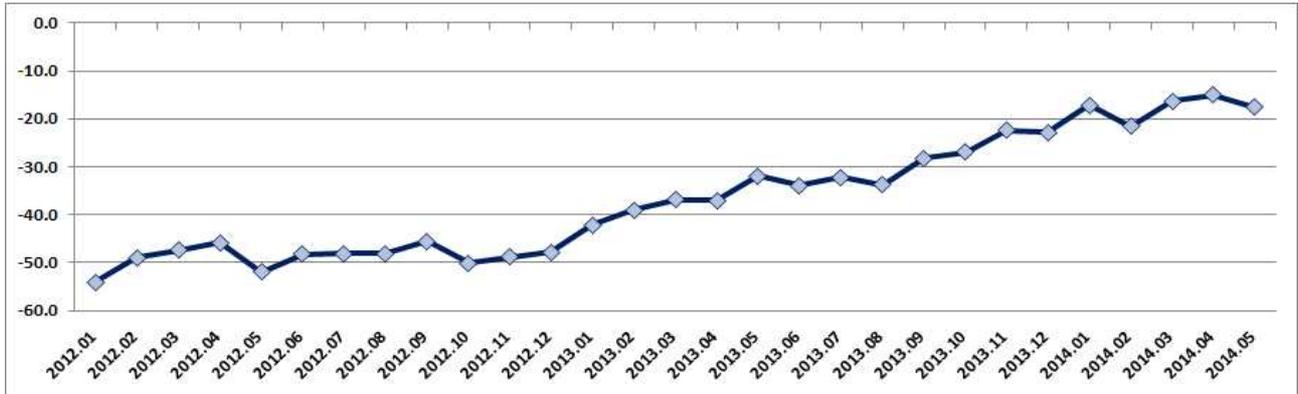
○ 기업투자

- 성장동력인 자동차 산업의 경우 Audi, Suzuki 등 주요 업체들이 2014년 현지 생산규모를 확대할 예정
- 성장기금 도입으로 인해 중소기업 대출이 늘어나면서 설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 헝가리 중앙은행은 2013년 4월 중소기업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성장기금(Funding for Growth Scheme)을 도입하여 투자를 지원

○ 민간소비

- 중앙은행이 저금리 기조를 지속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심리 호전이 예상됨.
- 소비자신뢰지수는 2012년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향후 기대감을 더하고 있음.

<헝가리 소비자신뢰지수 추이>



자료원: Eurostat

<헝가리 주요 경제지표>

(단위: 백만 유로,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1분기
GDP 규모	96,243	98,921	96,968	97,948	24,665
경제성장률	1.1	1.6	-1.7	1.1	1.1
실업률	11.2	10.9	10.9	10.2	7.9*
물가상승률	4.7	3.9	5.7	1.7	0.2*
수출액	72,024	80,684	80,612	81,365	23,805
수입액	66,514	73,592	74,078	75,350	21,872

자료원: Eurostat

*주: 실업률은 2014년 4월, 물가상승률은 6월 기준

다. 체코

□ 경기동향

○ 성장률

- 2012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낸 성장률은 2013년 하반기부터 반등하면서 2013년 기준 -0.9%를 기록
- 중앙은행이 2015년까지 외환개입을 통한 코루나화 평가절하를 지속할 방침임을 천명하면서 2014년에는 수출 주도로 1.4% 성장이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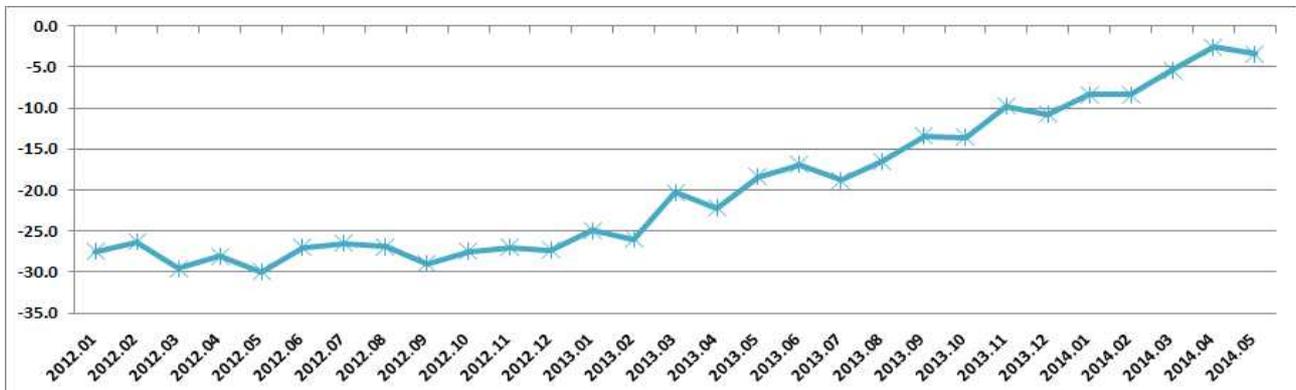
○ 대외무역

- 코루나화 약세에 힘입어 2014년에는 가격경쟁력을 회복한 제조업계의 수출이 본격 확대될 것으로 전망
- 대외교역량의 73.5%를 차지하는 EU의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 요인

○ 민간소비

- 수출 제조업 경기회복과 함께 임금상승에 힘입어 가계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소비자신뢰지수가 2013년 이후 급상승하고 있으며 2014년 하반기에는 플러스 수치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됨.

<체코 소비자신뢰지수 추이>



자료원: Eurostat

○ 외국인 직접투자

- 2014년 7월 투자 인센티브 제도 변경에 따른 FDI⁴⁾ 감소 우려

* 정부 지원금 상한선이 대기업의 경우 총 투자비용의 40%에서 25%로, 중견 기업은 50%에서 35%로, 소기업은 60%에서 45%로 축소됨.

<체코 주요 경제지표>

(단위: 백만 유로,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1분기
GDP 규모	149,932	155,486	152,926	149,491	36,802
경제성장률	2.5	1.8	-1.0	-0.9	0.3
실업률	7.3	6.7	7.0	7.0	6.5*
물가상승률	1.2	2.1	3.5	1.4	0.3*
수출액	100,311	117,054	122,230	121,588	31,211
수입액	95,536	109,285	110,066	108,021	28,124

자료원: Eurostat

*주: 실업률은 2014년 5월, 물가상승률은 6월 기준

4) Foreign Direct Investment(외국인 직접투자)

라. 슬로바키아

□ 경기동향

○ 성장률

- 2013년 성장률은 0.9%를 기록하며 유럽 재정위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플러스 성장을 유지
 - * 최근 성장률 추이 : (2010년) 4.4% → (2011년) 3.0% → (2012년) 1.8%
- 2014년에는 고정투자 회복, EU 기금 활용 인프라 건설(D1 고속도로) 등에 힘입어 2.4% 성장이 예상됨.

○ 실업률

- 2013년 평균 실업률은 14.2%로 비세그라드 4개국 중 최고치를 기록
- 2년 이상 실직자의 비중이 2013년에 11.6%p 늘어나는 등 장기실업 증가로 인해 우려를 낳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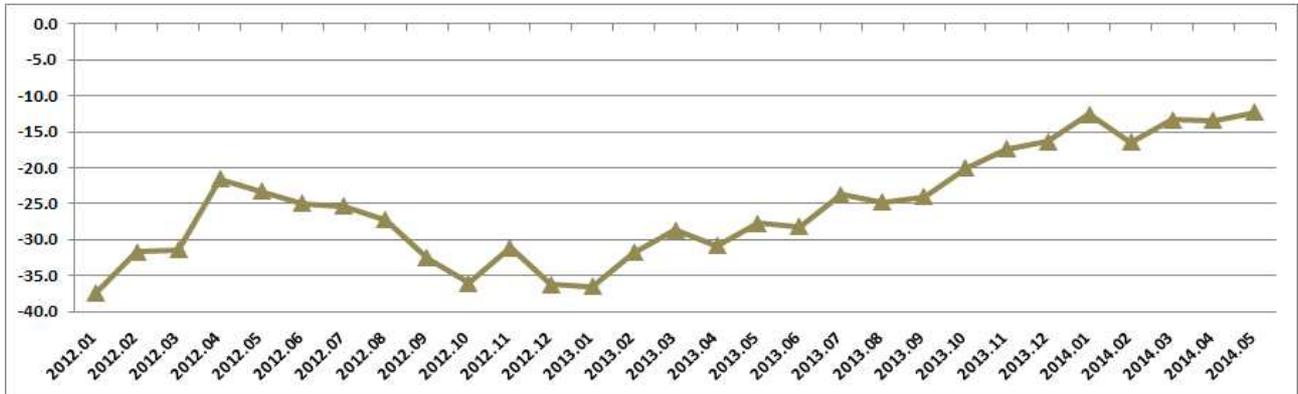
○ 대외무역

- 슬로바키아는 비세그라드 4개국 중 유일한 유로존 가입국으로 유로화 환율 변동이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
- 유럽 재정위기 여파에도 유로화 약세기조 등으로 수출규모는 꾸준한 증가 추세이며 2013년에는 대외수출이 전년대비 3.2% 확대됨.

○ 민간소비

- 정부가 세수 증대를 위해 기존의 일괄세율을 폐지하고 2013년 1월 누진소득세를 도입함에 따라 가계소비가 다소 위축됨.
- 이에 따라 소비자신뢰지수도 2013년 초에 일시적으로 하락했으나 이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음.

<슬로바키아 소비자신뢰지수 추이>



자료원: Eurostat

○ 외국인 직접투자

- 2012년에는 유로존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FDI가 급감하여 5년 만에 최저인 6,000만 유로를 기록했으나 2013년에는 소폭 회복됨.
- 외국인 직접투자는 제조업과 에너지 분야에 집중되며 그 중에서도 자동차 및 전자산업이 최대 투자분야
- 지역별로는 수도 브라티슬라바와 트르나바가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의 약 2/3를 점유하는데 지리적으로 서유럽에 가깝고 고속도로 등 물류 기반이 양호하기 때문으로 분석됨.

<슬로바키아 주요 경제지표>

(단위: 백만 유로,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1분기
GDP 규모	65,897	68,974	71,096	72,134	18,244
경제성장률	4.4	3.0	1.8	0.9	0.6
실업률	14.5	13.7	14.0	14.2	13.9*
물가상승률	0.7	4.1	3.7	1.5	-0.1*
수출액	48,777	57,349	62,742	64,754	18,185
수입액	49,050	57,358	60,242	61,676	17,016

자료원: Eurostat

*주: 실업률은 2014년 5월, 물가상승률은 6월 기준

II

폴란드

1. 투자환경 및 소비동향

가. 유럽의 물류·생산기지

□ 입지 여건

○ 동-서유럽을 잇는 핵심 플랫폼

- 폴란드는 독일, 체코, 슬로바키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러시아 등 유럽·CIS 지역 7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음.
- 이러한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 자국 제품을 수출하는 동시에 서유럽에서 수입한 완제품 및 원부자재를 인근 국가들로 재수출하고 있음.

<폴란드 주변국가와의 규모 비교>

(단위: 만 명, km², 억 달러)

구분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인구	3,852	1,051	988	549
면적	312,685	78,864	93,030	49,035
GDP	5,139	1,966	1,326	9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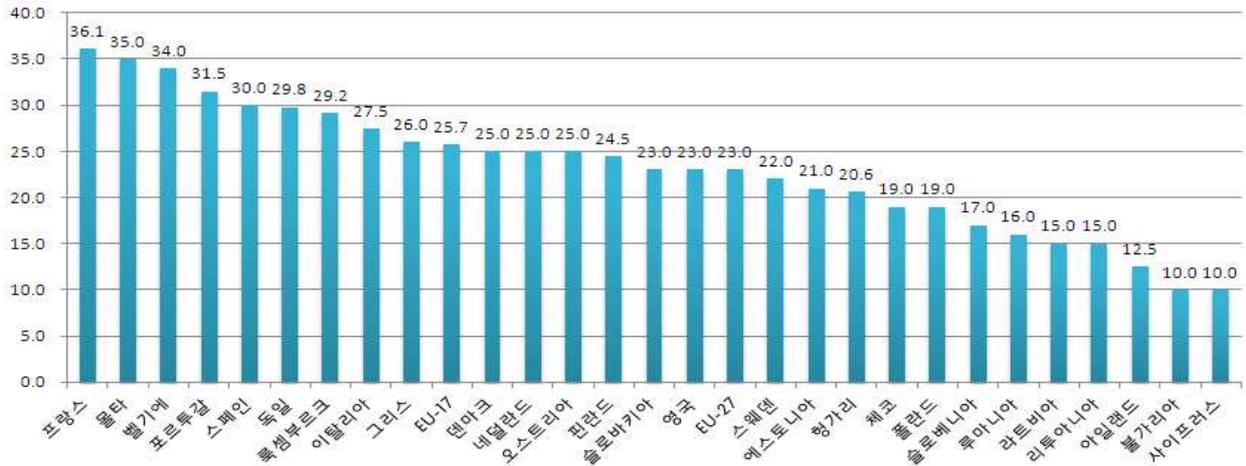
자료원: 폴란드 및 각국 통계청, OECD 자료 종합(2013년 기준)

○ 낮은 법인세율

- 2004년 EU 가입 시 법인세율을 19%로 대폭 인하(종전 27%)한 이후 현재까지 동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신규 투자유치를 위한 법인세율 인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2013년 기준 EU 회원국 중 최고치를 보이는 프랑스(36.1%)보다 17.1%p 낮으며, EU 평균(23.0%)을 하회하는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EU 회원국별 법인세율(2013년)>

(단위: %)



자료원: Ernst & Young, Worldwide Corporate Tax guide 2013

○ 양질의 노동력

- 경제활동인구가 전체 인구의 64% 수준으로 노동력이 풍부함.
- 고등교육 이수율이 EU 내 4위로 노동인구(25~64세)의 약 89%가 고졸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며 취업 인구의 약 32%가 대졸 이상
- 매년 약 40만 명의 고등교육 인력이 신규 배출됨. 전체 학생의 97%가 영어를 구사하고 독일어, 러시아어 구사자도 각각 59%, 37% 수준임.
- 고급인력의 공급 대비 수요가 부족한 상황으로 낮은 임금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로 꼽힘.

○ EU 기금 최대 수혜국

- 폴란드는 2014~2020년 EU 기금 729억 유로가 배정될 예정으로 향후 교통 인프라, ICT, 환경, 공항 개발 등 대형 투자 프로젝트가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EU 기금이 중점 배정되는 프로그램은 인프라 및 환경, 스마트개발, 지식·교육개발, 동부지역 개발, 기술지원, 디지털 폴란드⁵⁾ 등

5) 공공기관의 전자서비스 인프라 구축 지원과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인식 고취를 위한 교육 등 50여 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2014~2020년까지 약 20억 유로의 예산으로 운영됨.

<동유럽 지역 EU 결속기금⁶⁾ 배정현황>

(단위: 백만 유로, %)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폴란드	23,208.0	45.1	슬로바키아	4,168.3	8.1
루마니아	6,935.0	13.5	크로아티아	2,559.5	5.0
체코	6,258.9	12.2	불가리아	2,278.3	4.4
헝가리	6,025.4	11.7	동유럽 전체	51,433.4	100.0

자료원: EU 집행위원회

□ 투자 동향

- 외국기업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투자처
 - 폴란드는 중·동부 유럽에서 각광받는 비즈니스 서비스 거점으로 2008년 이후 매년 약 20%의 고용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400개 이상의 외국기업 IT 서비스 및 R&D 센터가 현지에 소재하며 이 중 80% 이상이 주요 7개 도시(크라쿠프, 바르샤바, 브로츠와프, 트리시티, 우치, 카토비체, 포즈나니)에 위치함.
 - 글로벌 기관들이 선정한 주요 FDI 대상 지역에서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음.
 - * Deloitte, Ernst&Young, Financial Times 등 주요 기관들은 투자 유망국가 중 폴란드를 세계 2~3위권으로 선정
- 중·동부 유럽의 실리콘밸리, 크라쿠프
 - 크라쿠프 기술단지(KTP⁷⁾)는 628ha 규모의 경제특구로 IBM, Oracle, Motorola, Google, Nokia Siemens 등 유수의 글로벌 기업이 소재함.
 - GE(General Electric)도 2013년 9월 크라쿠프 IT센터 건립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엔지니어, 연구원 등 150명이 고용될 것으로 기대됨.

6) EU 결속기금(EU Cohesion Fund) : 회원국 간 경제적, 사회적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1인당 GDP가 EU 평균의 90% 이하인 회원국에 지원되는 기금으로 통신, 환경, 교통인프라 구축 등에 투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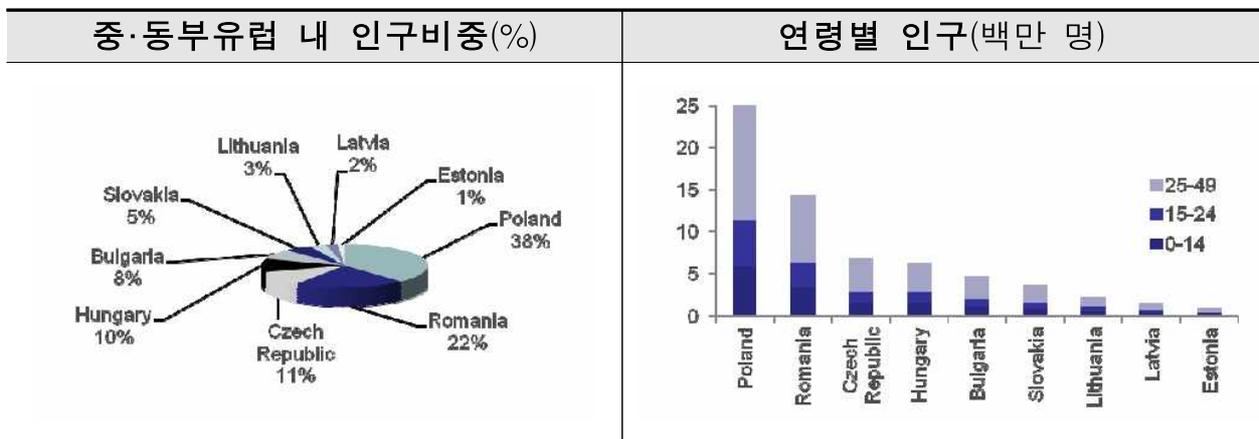
7) Kraków Technology park

나. 확대되는 소비시장

□ 소비시장 현황

- 중·동부 유럽 최대 시장
 - 폴란드 인구는 2013년 기준 3,852만 명으로 EU 회원국 중 6위이며, 중·동부유럽 전체 인구의 38%를 차지
 - 2013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도 10,100 유로로 상대적으로 높은 구매력을 보유함.

<폴란드 인구 현황>



자료원: 폴란드 투자청(PAIZ⁸⁾, 통계청(GUS), Eurostat

□ 소비자 특성

- 가격조건을 중시
 - 소비자 조사기관 Payback에 따르면 폴란드 소비자들은 상품 구입 시 가격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남.
 - 폴란드 소비자들은 상점별 가격을 꼼꼼히 비교하는 편이며 가급적 불필요한 물품은 구매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 실용적인 소비성향
 - 자국산 제품을 선호하며 구매결정 시 유행을 따르기 보다는 튼튼하고 실용적인지 여부가 주요 고려사항

8) Polish Information and Foreign Investment Agency

2. 한·중·일 진출동향 비교

가. 한국

□ 진출 및 협력현황

○ 우리나라의 주요 투자대상국

- 2012년 기준 한국의 對폴란드 투자액은 2,242만 달러(신규투자 4건)로 전년대비 59.6% 감소
- 2013년 신규 투자는 총 6건으로 전년대비 증가했으나 대부분 소규모 투자로 신규 투자액은 2,162만 달러에 그침.
- 누적투자액은 13억 6,071만 달러로 우리나라의 對EU 투자대상국 중 6위를 기록

* 對EU 투자 순위: 영국, 네덜란드, 독일, 아일랜드, 프랑스, 폴란드(누적금액 기준)

<한국의 對폴란드 직접투자 현황>

(단위: 건, 백만 달러)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누계*
신규법인 설립	16	12	1	9	5	4	6	146
투자금액	119	94	29	29	56	22	22	1,361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 주: 누계는 1990년~2013년 기준

□ 특징

○ 탈공산화 이후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

- 1989년 체제전환 이후 1995년 대우자동차와 협력업체의 진출로 본격화된 對폴란드 투자는 1996~1998년 4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주목받음.
- 2004년 폴란드의 EU 가입에 따른 여건 호전과 전자, 가전을 중심으로 대형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특히 2005년 LG전자와 협력업체가 동반진출하면서 2006년 한 해에만 2억 2,000만 달러의 투자액을 기록

- 2008년 이후 체코와 슬로바키아 소재 현대·기아차 공장과 연계한 자동차 부품 관련 투자가 폴란드 남부에 집중됨. 또한 LG 디스플레이가 브로츠와프에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삼성전자는 2010년 1월 현지 최대 가전업체 Amika를 인수하는 등 최근에도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제조업 설비투자 중심으로 진출
 - 우리기업은 자동차, 가전 등 제조업 중심의 생산설비 투자에 집중
 - 최근에는 R&D 분야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공공 프로젝트 건설 분야에서도 투자 논의가 활발함.

<주요 진출기업>

기업명	부문	제품	투자형태	진출시기
POSCO 건설	건설/엔지니어링	플랜트	단독투자	2013년
KT 폴란드지사	정보통신	IT 네트워크 구축	단독투자	2013년
만도	자동차	자동차부품(제동, 조향)	단독투자	2011년
삼성전자	가전	냉장고, 세탁기	단독투자	2010년
신창전기	자동차	자동차부품(엔진)	단독투자	2008년
대원강업	자동차	자동차부품(서스펜션)	단독투자	2008년
POSCO	철강	강판가공	합작투자	2007년
희성전자	전자	LED모듈, 패널 등	단독투자	2006년
LG디스플레이	전자	LCD 패널	단독투자	2005년
LG전자(브로츠와프)	가전	LCD TV, 냉장고	단독투자	2005년
휴맥스	전자	셋톱박스, 디지털TV	단독투자	2004년
LG전자(무와바)	가전	LCD, PDP TV	단독투자	1999년

나. 일본

□ 진출 및 협력현황

○ 한·중·일 3국 중 최대 투자국

- 2009년 기준 일본의 對폴란드 투자액은 15억 7,000만 유로로 아시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12억 4,000만 유로로 뒤를 이음.

<주요 진출기업>

연번	기업명	업종	세부분야
1	Daicel Chemical Industry Ltd	제조	자동차
2	Denso	제조	자동차
3	Fuji Seal	제조	플라스틱
4	Itochu Corp.	도소매, 수리	자동차
5	Marubeni Co.	도소매, 수리	자동차
6	Mitsubishi Corp.	운송	운송, 보관
7	Mitsui & Co. Ltd	운송, 보관, 제조	화학
8	Orix Corporation	금융	보험, 연금
9	Sanden Corporation	제조	자동차부품
10	Sharp Corporation	제조	가전
11	Sumitomo Corporation	제조, 도소매	자동차 수리, 건설, 도소매, ICT
12	Toshiba Corporation	제조	가전
13	Toyota Boshoku	제조	자동차부품
14	Yamazaki Mazak Corporation	도소매, 수리	자동차
15	YKK Holding Europe	제조	지퍼

자료원: 폴란드 투자청(PAIZ), List of Major Foreign Investors in Poland 2013

○ 제조시설은 투자 인센티브를 위해 경제특별구역(SEZ) 중심으로 진출

- 바우브지흐 SEZ의 경우 2013년 말 기준 12개사, 45억 즈워티 투자
- 2013년 10월, 폴란드 진출관련 투자장벽 대책마련을 위한 세미나 개최
 - * 바우브지흐 SEZ 투자자, 투자청, 주폴란드 일본대사관, JETRO 참석
- 2014년 7월에는 투자청 주관으로 'Japanese Day'를 개최, 현지 투자 일본기업과의 패넬토의를 통해 투자환경 개선 모색
- 당초 2020년 종료 예정이던 경제특별구역이 2026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투자 인센티브가 당분간 유지되면서 투자가 지속될 전망

<SEZ 주요 투자기업>

투자기업	SEZ	분야
Toyota Motor Manufacturing Poland	바우브지흐	자동차
NSK Steering Systems Europe	바우브지흐	운송장비
Daicel Safety Systems Europe	바우브지흐	자동차
Sanden Manufacturing Poland	레그니짜	냉난방기

□ 특징

- 중·동부 유럽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한 지역본부 형태로 진출
 - 2012년도 건수기준 2위(6건, 1위는 미국), 금액기준으로는 1위를 차지 (3억 2,950만 유로)
 - 본부(Headquarter) 설립과 함께 제조, 세일즈, 고객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
 - * Fanuc(산업용 로봇 제조) : 브로츠와프에 지역본부를 설립하여 판매 뿐 아니라 교육, 컨설팅, 고객서비스 등을 제공
 - * Mitsubishi 전자 : 크라쿠프 인근에 동유럽 본부를 겸한 산업자동화센터 설립

다. 중국

□ 진출 및 협력현황

- 최근 들어 폴란드와 교류 활성화
 - 2010년 이전까지는 중국이 중·동부 유럽 국가들과 뚜렷한 무역 투자 교류를 보이지 않았음.
 - 하지만 2011년 폴란드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2012년 원자바오 중국 전 총리의 폴란드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이 점차 나타나고 있음.
- 중국은행을 중심으로 투자증가 전망
 - 중국은행(Bank of China)은 현지 투자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폴란드 지점을 개설함.

- 중국 COVEC社의 A2 고속도로 건설이 하청업체 대금결제 지연으로 2011년 중단되면서 투자 위축이 우려되었으나 이후에도 중국기업의 투자는 계속되고 있음.

□ 특징

- 자본력을 바탕으로 제조 생산법인을 인수
 - 2013년 기준 20개의 대기업, 300여개의 중소기업이 현지에 진출했으며 주요 분야는 전자제품(TV, 모니터), IT, 건설기계 등
 - 대부분 최근 3~4년 사이에 진출한 기업들이며 2011년 한 해에만 3억 5,000만 유로를 폴란드에 투자
 - * Guangxi Liu Gong Machinery가 Huta Stalowa Wola(건설중장비 제조)를 1억 달러에 인수(2012년)
 - * Tri-Ring Group이 F&T Kraśnik(베어링 제조)를 7,000만 달러에 인수(2013년)
 - 또한 중국기업들은 민영화 대상 폴란드 공기업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현지 투자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투자 활성화 전망
 - 폴란드 투자청은 중국투자공사(국부펀드) 투자유망 프로젝트를 발굴 중
 - 투자청은 당분간 인프라 건설 관련 중국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며 이를 서서히 그린필드형 투자로 확대해 나갈 예정

<주요 진출기업>

연번	기업명	업종	세부분야
1	Haoneng Packaging	제조	포장
2	LiuGong Machinery	제조	기계
3	Shanxi Yuncheng Plate-making Group	제조	포장
4	Sino Frontier Properties Ltd.	건설	건설
5	Suzhou Victory Precision Manufacture Co	제조	플라스틱
6	TPV Technology Ltd	제조	가전

자료원: 폴란드 투자청(PAIZ), List of major foreign investors in Poland 2013

라. 시사점

- 폴란드의 투자유치 정책 활용
 - 정부는 2011년부터 투자유치 프로그램⁹⁾을 통해 세제감면을 시행하며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음.
 - 또한 EU 기금의 최대 수혜국으로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매력으로 작용
 - 그러나 느린 행정처리와 복잡한 절차는 외국인투자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되며 즈워티화의 높은 환율 변동성 또한 개선사항으로 언급됨.

- 독자적 브랜드 구축 필요
 - 현지진출 대기업의 활약 덕분에 한국의 이미지가 향상됨. LG, 삼성은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기업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으며 현대·기아차는 5~7년의 장기보증, 유로 2012 후원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시행함.
 - 한국의 국가브랜드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경우 브랜드와 구매 경험을 중시하는 폴란드 소비자 대상으로 자체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한다면 시장진출이 촉진될 것으로 보임.

-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현지 네트워크 마련
 - 폴란드가 EU에 가입한 2004년 이전에 일본은 이미 110개사가 현지에 진출했고 이후에도 2010년까지 투자진출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함.
 - 중국의 경우 후발주자이나 풍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진출을 준비 중이며 재정위기 이후 비용절감에 주력하는 현지기업과 활발히 거래하며 저가시장을 장악하고 있음.
 - 이처럼 경쟁국의 진출이 활발한 가운데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지사 설립을 통한 사후관리와 현지기업과의 협력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9) Program for the Support of Investments of Considerable Importance for Polish Economy for Years 2011-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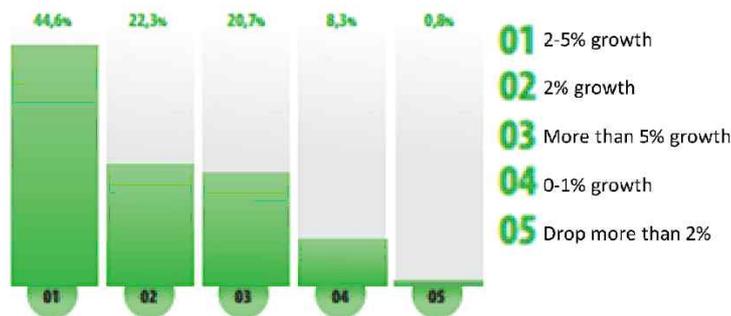
3. 유망산업 및 참고사항

가. 투자진출 유망산업/분야

- (프로젝트) EU 기금 투입이 본격화되는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 시장
 -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 역량을 집중해 온 우리기업에게 500억 유로 이상의 미개척지인 EU 시장에 관심을 가지도록 홍보활동 강화 필요
 - EU 기금 배정 프로그램 5대 사업은 인프라 및 환경, 스마트 개발, 지식·교육개발, 동부지역 개발, 기술지원, 디지털 폴란드 등
 - * 우리기업 진출 10대 유망분야 : 초고속 인터넷망,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전자정부, 재난방지시스템, e-learning, Smart City, 발전, 수처리, 소각 플랜트, 교통망
- (자동차) 주요 수출대상인 유로존의 경기회복에 따라 활황 예상
 - 2014년 1분기 폴란드산 자동차 판매는 전년대비 28.9% 증가
 - 폴란드 소재 Mercedes, BMW, Audi, Volvo 등 4대 글로벌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자동차업체가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예상
 - 최근 유럽 경기회복 또한 동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생산량은 2014년 47만 6,000대, 2015년에는 49만 4,000대로 예상
- (에너지) 탄소배출 규제에 따른 노후시설 교체수요 발생
 - 2019까지 약 98억 유로 규모의 투자가 계획 중으로 향후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발주 및 송배전 설비 확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현재 쓰레기 발생량의 73% 이상을 매립하며 EU 평균(38%)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폐기물·소각로 프로젝트도 활발할 것으로 전망됨.
 - 폴란드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527곳의 쓰레기 매립지가 운영 중이며 2012년 기준 총 면적은 2,197ha에 달함.
 - 폐기물 프로젝트 수주기업은 폐기물 처리 시 발생하는 전력을 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가격은 최소 전년 평균전력가격을 보장받음.
 - * 2013년 보장가격은 MWh당 201.36 즈워티(약 50 유로) 수준

- (ICT) 2020년에는 GDP의 10% 비중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
 - 정부는 2020년까지 모든 국민이 30MB/s 이상 속도로 인터넷을 이용 가능한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통계청에 따르면 ICT 시장규모는 2012년 기준 157억 유로로 GDP의 7.9%를 차지하며 10년 이내에 1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
 - ICT 시장에서는 1,540여개의 기업이 경합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17만 4,000여명, 수출은 82억 유로, 수입은 10억 유로 규모
 - Sharp, LG, Campal, Dell 등 외국계기업 현지공장이 관련제품 생산과 수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폴란드 ICT시장 성장가능성 설문조사 결과>



자료원: 경제부, ICT 기업 및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주: 향후 5~10년 간 폴란드 ICT 성장률 예상치 기준

나. 진출 시 참고사항

□ 투자 인센티브

- 지역별 지원
 - (경제특별구역) 정부는 전국에 14개의 경제특별구역(SEZ¹⁰)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지역 투자기업은 투자비용의 최고 50%까지 면세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음.
 - 법인세 공제는 지역보조금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SEZ 내에서 수행한 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에 대해서만 제공됨.

10) Special Economic Zone

- SEZ 허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을 개시하기까지는 일반적으로 3~4개월이 소요되며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① 투자 규모가 최소 10만 유로 이상
 - ② 투자가 보유 주식지분이 25% 이상
 - ③ 투자완료일로부터 적어도 5년 동안 투자를 유지(중소기업은 3년)
 - ④ 사업 개시일로부터 신규 사업장을 5년 이상 유지(중소기업은 3년)
 - 약정 조건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입주허가 취소, 인센티브 반납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므로 경제특구 입주 시 위험성도 고려해야 함.
 - **(산업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설립하였으며 전국에 약 30개가 소재함. 이 중 일부는 SEZ로 지정되어 있으며 크라쿠프 기술단지(Cracow Technology Park)가 대표적인 사례
 - 산업단지 입주 시 투자 보조금과 함께 부동산세 감면, 에너지, 난방, 용수 비용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또한 운영 당국이 단지 내 도로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매력적인 조건
 - 개별 산업단지 관련 상세 정보는 투자청(www.paiz.gov.pl) 또는 주한 폴란드대사관 홈페이지(seoul.trade.gov.pl/ko/)에서 확인 가능
- 재정적 지원
- **(보조금)** 비즈니스 서비스 센터의 경우 정부 보조금 수혜를 위해서는 최소 25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200만 달러의 투자가 필요
 - R&D 센터는 대졸자 이상이 지원 가능한 35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300만 즈워티 이상 투자가 요구됨.
 - 일자리 창출 시 지원금은 3,200~15,600 즈워티로 아래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상이함.
 - ① 고용창출 규모
 - ② 고용창출의 질(학사 학위 소지자가 지원 가능한 일자리)
 - ③ 투자 지역
 - ④ 투자 규모

- 보조금 지급 최종결정권은 경제부에 있으나 사전에 투자청(PAIZ)이 구체적 프로젝트 내용을 포함한 가신청서를 접수해 EU 집행위원회의 추천서를 획득해야 공식 신청이 가능함.
- **(R&D 재정지원)** 국립연구개발센터(NCBI¹¹⁾의 응용 연구 프로그램은 R&D 투자와 금융서비스 부문 관련 지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
- 동 프로그램을 통해 R&D 비용의 65%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가능 분야는 박사급 이상 전문가와의 연구 협력, 특정 기관과의 혁신적인 R&D 협력 등

○ EU 기금 활용

- 2014~2020년 EU 기금의 최대 수혜국인 폴란드는 교통, 통신, 도로 등 주요 프로젝트에 적극 투자하고 있음.
- 정부는 동 기간 배정받은 EU 기금 829억 유로, 농촌발전기금 285억 유로 등 총 1,058억 유로를 활용하여 현금지원, R&D, 환경 지원금 등 다양한 형태로 외국인 투자기업을 적극 지원함.

□ 유의사항

○ 지역별 수송 인프라 편차 고려

- 폴란드에서 원부자재 및 완제품 수송 시 도로운송 비중은 83.5%에 달하나 전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망이 아직까지 구축 단계에 있음.
- 외국인투자가 집중된 서남부 지역을 제외하면 1차선 도로 위주로 포장상태가 열악하므로 향후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기반한 투자입지 선정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최근 인건비 급상승에 주의

- 폴란드는 인근 서유럽 국가 대비 낮은 임금 덕분에 생산기지로 각광받았으나 2008~2011년에는 12.5%의 가파른 임금상승률을 기록함.
- 이에 따라 더 이상 낮은 인건비라는 이점으로 투자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님을 고려해야 함.

11) National Centre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III 헝가리

1. 투자환경 및 소비동향

가. 유럽의 물류·생산기지

□ 입지 여건

- 중·동부 유럽에 위치한 물류중심지
 - (복합 수송망) 도로, 철도, 수로로 구성된 범유럽 수송망(Pan-European Transport Corridors) 10개 경로 중 4개가 헝가리를 경유함.
 - * 헝가리는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7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음.
 - (고속도로) 방사형 고속도로는 인근 주요도시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며 벨기에, 네덜란드에 이어 유럽 내 고속도로 밀도¹²⁾ 3위

<고속도로 현황 및 개발계획>



자료원: 헝가리 무역투자청(HITA¹³⁾)

12) 국토면적 1km²당 도로연장(km)

13) Hungarian Investment and Trade Agency

- (철도) 유럽 주요 항구(함부르크, 로테르담 등)와 동쪽으로는 중국까지 이어진 철도망을 갖추고 있어 유럽 내 밀도가 4위
- 범한판토스는 물류 중계기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2011년 FELB¹⁴⁾와 합작법인을 설립해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유럽 물류망을 연결하고 있음.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계 경로>



자료원: FELB

- (수로) 헝가리를 북에서 남으로 관통하는 다뉴브 강은 북해와 흑해를 잇는 수상 교통망으로 활용됨.
- 숙련된 노동력
 - 헝가리인은 엔지니어링, IT, 제약, 물리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이며, 특히 젊은 세대는 외국어에 능통해 고학력 노동력으로 평가됨.
- 저렴한 임금수준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BP, IBM, Vodafone 등 다국적 기업들은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서비스센터를 헝가리로 이전했으며 2010년에 Nokia도 현지 R&D 센터를 설립한 바 있음.

14) Far East Land Bridge

- 2013년 기준 대졸 사무직 월평균 임금은 53만 6,801 포린트(약 231만 원), 비사무직의 경우는 29만 9,772 포린트(약 129만 원)

□ 투자 동향

- 유럽시장 전체를 겨냥한 투자
 -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내수시장보다는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타 외국기업들도 유사한 상황
 - 이는 헝가리 자체 내수시장보다는 지리적 입지, 저렴한 노동력, 교통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유럽 전역을 판매시장으로 공략하기 위함임.
- 외국인 투자 활성화
 - 2012년 기준 외국인 투자누계는 777억 유로로 전년동기 대비 소폭 증가했으며 최근 Daimler의 8억 유로 투자는 헝가리 사상 최대 규모
 - 또한 Audi가 9억 유로, Opel이 4억 5,000만 유로의 신규투자 결정을 내리는 등 제조업 중심의 FDI가 활발함.

<對헝가리 외국인 투자추이>

(단위: 백만 유로)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투자액 누계	62,454	68,608	67,946	65,398	77,756

자료원: 헝가리 중앙은행(MNB¹⁵⁾)

*주: 누적(stock) 기준,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Entities) 제외

- 자동차, 전자, 물류산업 중심
 - (자동차) 전체 GDP의 10%를 차지하며 총 고용인구가 11만 5,000명에 이르는 등 헝가리 경제를 이끄는 주요 산업
 - 현지 소재 완성차 메이커는 Daimler, Suzuki, Audi 등 3개사
 - 자동차 산업 관련 기업은 모두 712개에 이르며, 1차 벤더는 대부분 글로벌 기업, 3~4차 벤더는 대부분 헝가리 기업
 - * 1차 벤더로는 Bosch, Bridgestone, Continental, Delphi, Denso, 한국타이어, Lear, Luk Michelin 등이 있음.

15) Magyar Nemzeti Bank(The Central Bank of Hungary)

<현지소재 주요 완성차 기업 현황>

Daim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3월 8억 유로를 투자하여 헝가리 Kecskemét 공장 가동 - Mercedes Benz B-Class 모델을 생산하고 있으며 2013년 4도어 쿠페형 New B-Class 모델 출시 - 2013년에 109,266대의 신차를 생산했으며 2014년에는 145,000대 생산 예정 - 고용인원은 2013년 기준 3,358명
Aud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년 Audi TT 시리즈를 시작으로 Audi A3, S3 등 다양한 모델을 조립 생산 - Audi 차량에 탑재되는 대부분의 엔진을 Győr 공장에서 생산 중 - 2014년에는 125,000대 생산 예정 - 고용인원은 2013년 기준 10,337명
Suzuk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1년 Esztergom에 공장을 설립해 유럽지역의 공급기지로 삼고 있음. - 주요 생산모델은 New Swift, SX4(Fiat Sedici), Splash(Opel Agila) 등 - 2013년 161,106대 생산, 2014년에는 154,000대 생산 예정 - 고용인원은 2013년 기준 2,930명

- (전자) 제조업의 22% 비중을 차지하며 11만 2,000명이 종사함.
- 투자기업들은 대부분 다국적 기업들로 생산 제품을 서유럽으로 재수출하는 구조

<전자산업 주요 투자기업>



Source: HITA, 2014

자료원: 헝가리 무역투자청(HITA)

- (물류) GDP의 5~6%를 차지하며 투자 및 물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저렴한 인건비, 우수한 물류·운송 인프라 여건, 발칸반도 및 CIS 국가 등 주변국 시장으로의 진출 가능성 보유
- 헝가리 투자청에 따르면 부다페스트 30km 반경 내에 현대식 물류창고가 30개 이상 소재하며 총 면적은 160만m²에 달함.

<물류분야 주요 투자진출 사례>

Ability Logistics	- 현지 시장점유율 1위 업체로 현대화된 창고시설을 보유하며 유럽 내 물류 서비스가 주 수입원
DHL	- 부다페스트 인근 울로(Ulló)로 물류센터를 이전하여 2013년 3월 운영을 개시 - 헝가리 소재 물류센터는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등 인근 12개 국가를 관할함.
Huawei	- 2009년 대규모 생산공장을 설립하여(1,700여명 고용) 유럽 내 생산거점으로 관리하고 있음. - 2011년에는 15억 달러를 투자해 물류센터를 건설하기로 헝가리 정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

나. 확대되는 소비시장

□ 소비시장 현황

- 2013년 기준 1인당 GDP는 약 1만 3,000달러
 - 서유럽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1990년과 비교하면 무려 355% 증가한 수치
-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활성화 기대
 - (가처분소득 증가) 정부는 공공요금 인하, ATM기 수수료 인하 등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를 통해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있음.
 - * 2013년 가스, 지역난방, 전기요금은 20% 가량 하락했으며 수도세, 쓰레기 처리비용의 경우 10% 인하됨.

- (고용 창출) 공공분야 일자리 증가에 힘입어 2014년 1월 실업률은 8.3%로 하락, 재정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2013년 노동법 개정을 통해 노동유연성 및 고용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옴.
 - * 공공 일자리 창출: 2014년 월평균 근로자 2만 명 채용을 목표로 함.
 - * 노동법 개정(2013년): 해고조항을 완화하여 고용주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함.
- (저금리 기조) 중앙은행이 최근 2년간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한 결과 2014년 7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함.
 - * (2011.12) 7.0% → (2012.12) 5.75% → (2013.12) 3.0% → (2014.7) 2.1%

□ 시장 특성

- 합리적 소비 중시
 - 기존 구입처에서 동일 제품을 구입하는 ‘안전소비형’ 집단이 헝가리 소비자의 29%로 최대 비중을 차지함.
 - 2011년 3.9%, 2012년 5.7% 등 계속되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가격을 중시하는 합리적 소비가 확산되면서 일반브랜드 대비 30~50% 저렴한 자체브랜드 제품(PB¹⁶⁾) 구입이 크게 증가함.
- 중장년층의 높은 구매력
 - 중위연령¹⁷⁾이 40세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여타 신흥국 대비 중·장년 인구 비중이 높음.
 - 이에 따라 교통, 의료, 주택 유지보수 관련 지출이 많다는 점이 특징

16) Private Brand

17) 중위연령(median age) : 전체 인구를 연령순으로 일렬로 세워 2등분하는 연령

2. 한·중·일 진출동향 비교

가. 한국

□ 진출 및 협력현황

- 일본과 더불어 주요 투자국으로 부상
 - 2013년 기준 우리기업의 對헝가리 투자 누계 신고금액은 약 5억 3,100만 달러, 진출기업은 약 45개로 집계됨.
 - 2009년부터는 對헝가리 투자규모에서 일본을 앞서기 시작했으며 2012년에 10억 유로를 상회하는 누적 투자액을 기록함.

<한국의 對헝가리 최근 5년간 투자금액>

(단위: 백만 유로)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780	895	804	863	1,048

자료원: 헝가리 중앙은행(MNB), 2014년 6월 기준 최신자료

*주: 누적(stock) 기준,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Entities) 제외

□ 특징

- 제조 및 금융업 중심으로 진출
 - 2013년 기준 누계 투자금액의 62%가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금융의 경우 대부분 KDB 유럽의 투자로 파악됨.
 - (삼성전자) 2000년 현지 TV 시장점유율 1위, 2012년에 점유율 50%를 돌파하면서 2007년 제2공장 증축, 2014년에는 3공장 증축을 완료하여 생산성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한국타이어) 2011년 매출액 기준 63위를 달성해 현지 100대 기업에 신규 진입하였으며, 2012년 47위로 부상함.
 - (KDB 유럽) KDB 산업은행은 1990년 헝가리 법인 설립 후 2013년 상호명을 KDB 유럽으로 변경함. 유럽 전역으로 영역을 넓혀 2018년까지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그리스에 신규지점 개설을 계획 중

나. 일본

□ 진출 및 협력현황

- 전통적인 對헝가리 주요 투자국
 - 2012년 누적 투자액은 7억 7,300만 유로로 아시아 최대를 나타낸 2008년 (9억 5,900만 유로) 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주요국으로 평가됨.
- 일본-헝가리 정상회담 개최
 - 2013년 6월 아베 총리는 비셰그라드 4개국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에너지·안보협력 공동성명을 발표함.
 - 일본은 헝가리의 동방정책을 환영하면서 상호 교류를 바탕으로 원전 및 인프라 수주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양국 간 에너지 협력방안 모색 중
 - 향후 헝가리와 인근국 간 송전탑 설치 등의 프로젝트에 일본기업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음.
 - 일본정부는 자국기업의 원전 수주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헝가리 총리도 일본 국영기업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함.

<일본의 對헝가리 최근 5년간 투자금액>

(단위: 백만 유로)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959	818	794	869	722

자료원: 헝가리 중앙은행(MNB), 2014년 6월 기준 최신자료

*주: 누적(stock) 기준,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Entities) 제외

□ 특징

- 자동차부품을 중심으로 유럽 생산거점 확보
 - 120여개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2012년 FDI 규모가 100만 유로에 달해 현지 자동차 산업에서 일본의 투자는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음.

- 1990년대 초부터 Suzuki를 필두로 꾸준히 진출하여 완성차 및 1,2차 벤더가 다수 포진해 있음.
- 제조업 기반 진출로 현지 일자리 창출에 기여
 - Suzuki는 대표적인 현지진출 완성차업체로 2013년 매출이 전년대비 11.6% 증가함.
 - Denso는 자동차부품 업체로 현지 하청기업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헝가리 정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함.
 - Bridgestone은 현지에서 타이어를 생산하며 2013년 2억 6,000만 유로 추가 투자를 결정함.

다. 중국

□ 진출 및 협력현황

- 헝가리와 고위급회담 개최
 - 2014년 2월 중국을 방문한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리커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함.
 - 동 성명은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원자력 기술, 투자진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협력을 골자로 하며 양국 간 본격적인 협력 증진이 예상됨.

※ 중국-헝가리 공동성명 주요 내용

- 인프라(헝가리-세르비아 철도 건설), 원자력 에너지 분야 협력방안 모색
- 양국 통화스왑 협정 체결, 자국 소재 상대국 기업 지원(비자, 노동 허가, 이중과세 금지 등) 추진
- 과학기술과 농업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해 공동 연구실을 설립
- 민간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상대국에 문화센터를 설치하고 양국 언어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학교 설립, 관광 협력 등을 추진

- 금융지원을 통해 진출 가속화
 - 중국은행(Bank of China)의 대규모 금융지원 덕분에 Wanhua는 2011년 헝가리 화학기업 Borsodchem 인수에 성공함.
 - 중국 개발은행은 프로젝트 개발협력 촉진을 위해 헝가리에 10억 유로 차관을 제공함.

<중국의 對헝가리 최근 5년간 투자금액>

(단위: 백만 유로)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30	7	99	-25	65

자료원: 헝가리 중앙은행(MNB), 2014년 6월 기준 최신자료

*주: 누적(stock) 기준,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Entities) 제외

□ 특징

- 대규모 생산법인 형태의 진출 위주
 - Huawei는 통신장비 및 휴대폰 생산, 수익의 13.5%를 현지 R&D에 투자하고 있음.
 - Lenovo는 주요 컴퓨터 제조업체로 생산품의 약 97%를 수출함.
- 생산·물류거점 확보를 통해 서유럽 판매망 구축
 - 중국의 헝가리 진출은 2000년대 중반 본격화되었으며 유럽 재정위기 이후에도 공격적인 투자를 보이고 있음.
 - * 2012년 FDI는 유입액(Flow) 기준 200.99% 증가
 - 휴대전화 생산업체인 Huawei가 대표적인 투자기업으로 2004년 Vodafone 등 8개 통신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으며 입지 구축
 - Huawei는 2만 5,000m² 규모의 물류센터를 건설할 예정으로 유럽 판매망 확보에 크게 기여할 전망

라. 시사점

- 교역 다변화를 위해 아시아와의 협력 확대를 적극 모색 중
 - 헝가리는 다국적기업의 유럽 내 조립생산 거점으로 EU의 경기상황에 따라 대외교역이 변동하는 구조
 - 2012년 중국, 일본,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 교역대상국 4위로 부상한 한국과의 협력도 중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중소기업간 네트워크 형성 및 농산물 교역확대를 희망함.
 - 오르반 총리는 2013년 11월 일본, 2014년 2월에는 중국을 잇달아 방문했으나 아직까지 한국과의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않은 상황
- 적극적인 금융지원 혹은 동반진출이 가능한 대규모 투자 필요
 - V0 철도 확장사업의 경우 중국과 헝가리 양국 국영 철도회사 간 합작으로 진행하는 등 협력관계가 구축됨.
 - 일본의 경우 현지 진출 자동차 제조업체를 기반으로 연계 진출이 이루어지며 전략적 협력협정을 통해 헝가리와 유대를 강화하고 있음.

3. 유망산업 및 참고사항

가. 투자진출 유망산업/분야

- (자동차) 제조업 생산의 18%, GDP의 10%, 수출의 18%를 차지
 - 2010년 이래 매출이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에도 전년대비 13.4% 증가함.
 - * (2011년) 186억 달러 → (2012년) 202억 달러 → (2013년) 229억 달러
 - 관련 기업 712개가 현지에서 영업 중이며 11만 6,000명을 고용함. 4대 기업(Audi, Mercedes, Opel, Suzuki)은 2013년 2,600명을 신규 채용함.
 - Audi, Suzuki, Mercedes는 2014년에 40만대 이상을 생산할 것으로 보여 중유럽의 자동차 허브인 체코(120만대), 슬로바키아(90만대)에 버금가는 생산규모가 될 것으로 기대됨.

<현지진출 자동차 기업의 생산량 및 목표치>

(단위: 대)

기업명	2013년	2014년(목표치)
Suzuki Hungary	161,106	200,000
Mercedes Benz Hungary	109,266	105,000
Audi Hungary	42,851	125,000
총계	313,223	430,000

- 헝가리 정부는 외국산 자동차 메이커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을 육성·발전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어 자동차 부품업체 중심으로 진출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
- 일례로 한라비스테온(HVCC) 헝가리 법인은 현지에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여 인근국으로 납품하고 있어 향후 우리 기업의 진출모델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의료· 제약) 전통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자동차, 전자와 함께 FDI 유치 3대 분야로 꼽힘.
 - 신약 개발 적합성 판정의 경우 서유럽의 1/5에 불과한 비용으로 가능하며 우수한 현지 의료인력을 활용한 외국인용 종합병원 운영 등 의료기관의 진출도 유망
 - 헝가리 투자청에 따르면, 셀트리온이 난공불락으로 보이던 유럽 제약시장에 진입한 사례와 같이 우수한 국내 제약기업이 헝가리를 통해 유럽 전역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국과의 협력에 호의적인 헝가리를 EU 의료· 제약 분야 협력의 관문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
- (R&D) 우수한 기초과학 인력 및 네트워크 활용
 - 기초기술연구회는 2009년 헝가리 과학원(HAS¹⁸)과 연구협력 MOU를 체결했으며 공동연구 사업을 통해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추진 중
 - 또한 헝가리 정부는 R&D 부문에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어 공동연구 사례를 기반으로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현재 진행 중인 공동연구 과제>

분야	연구기간	연구기관	
		한국	헝가리
원자력	2012.12~2015.12	원자력연구원	EK(에너지연구원)
핵융합	2011.9~2014.8	핵융합연구소	KFKI(입자물리연구원)
나노과학	2013.12~2016.12	표준과학연구원	MFA(재료연구원)
바이오 생명		생명공학연구원	IE, BRC(효소연구원)

나. 진출 시 참고사항

□ 투자 인센티브

- 진출지역 선정 시 투자 인센티브 상한 고려
 - 헝가리의 경우 보조금,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의 총합에 지역별 상한제도가 존재함.

18) Hungarian Academy of Science

- 지역별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개발이 필요한 지역일수록 인센티브가 높아지는 차등구조
- 지역별 인센티브 상한 비율은 기업 규모별로 상이함.
 - * 대기업 : 지역별로 투자액의 20~50%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설정
 - * 중소기업 : 대기업 기준 인센티브 상한의 10% 추가 지원
 - * 영세기업 : 대기업 기준 인센티브 상한의 20% 추가 지원

<지역별 인센티브 상한 비율(2014-2020년)>

(단위: %)

지역		비율
부다페스트		0
중부 헝가리	Érd, Gödöllő, Gyál, Maglód, Pécel 외 77개 도시	35
	Piliscsaba, Pilisjászfalu, Pilisvörösvár, Solymár	20
	그 외 도시	0
북부헝가리		50
북부 평원		
남부 평원		
남부 트랜스다뉴브		35
중부 트랜스다뉴브		35
서부 트랜스다뉴브		25

자료원: 헝가리 무역투자청(HITA)

□ 유의사항

- 빈번한 조세제도 개정
 - 현지 정부의 잦은 조세제도 변경으로 인한 행정비용 발생
 - 제도 개정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헝가리 현지 인력을 고용하고 회계법인을 통해 세제변경 사항을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함.
- 한국인 채용 난항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헝가리 국민을 고용하지 않는 사유'를 제출해야 하며 당국의 승인이 까다로워 현지 투자기업들이 한국인 근로자 고용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IV 체코

1. 투자환경 및 소비동향

가. 유럽의 물류·생산기지

□ 입지 여건

- 자동차 및 기계산업 등 제조업이 GDP의 24%를 상회하는 제조업 강국
 - 현대차, Skoda, TPCA(Toyota-Peugeot-Citroen) 등 완성차 생산업체가 현지 공장을 운영, Continental, Bosch, Denso 등 유력 자동차부품 생산업체도 다수 진출
 - 이에 따라 체코 내 자동차 생산규모는 세계 12위이자 유럽 내 5위
- 인근 주요국 진출에 유리한 위치
 - 독일,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및 폴란드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중·동부 유럽 국가 중 지리적으로 서유럽에 가장 근거리에 위치함.

<유럽 주요 도시와의 거리 비교>

(단위: km)

구분	베를린	함부르크	로마	파리	암스테르담	마드리드	모스크바
프라하	345	640	1,308	1,030	896	2,239	1,934
바르샤바	567	851	1,802	1,588	1,191	2,853	1,260
부다페스트	869	1,164	1,228	1,485	1,398	2,526	1,825

자료원: Google maps

- 철도, 도로망 등 육로운송 원활
 - 2013년 기준 총 9,619km에 달하는 철도망을 보유하며 고속도로(1,118.1km)와 일반도로(54,990km)도 잘 갖춰져 있음.
 - 노후된 D1 고속도로 확장 및 현대화 작업을 2013년부터 진행 중이며 완료 시 육로운송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 D1 고속도로: 체코 주요도시(프라하-브르노-오스트라바)를 잇는 핵심도로

- 고급 인력 수급이 용이
 - 2013년 기준 대학 진학률은 약 64%, 대학생은 총 38만 명에 달함.
 - 최저임금은 2014년 기준 8,500 코루나(약 309 유로)이며 평균임금 역시 2014년 1분기 기준 24,806 코루나(약 918.7 유로)에 불과하여 서유럽 대비 낮은 인건비로 우수인력 확보가 수월함.
- EU 기금 활용 가능성
 - 체코는 2014~2020년 EU 기금 220억 유로를 확보, 지역개발 협력 등의 분야에 사용할 예정

<EU 기금(2014-2020) 할당 개요>

(단위: %, 백만 유로)

명목	규모	비중
미개발 지역 개발	15,300	69.4
개발지역(프라하) 개발	88	0.4
결속기금	6,300	28.6
유럽 지역협력	340	1.5
청년실업 해결	13	0.1
합계	22,041	100.0

자료원: Eurostat

- 정부는 EU 기금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으로 OP PIK¹⁹⁾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R&D 센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 초고속 인터넷 및 IT 기술을 지원할 계획
- * 프로그램별 프로젝트, 지원 방식 등 상세 내용은 2014년 4분기에 발표할 예정

□ 투자 동향

- 최근 5년간 對체코 외국인 직접투자는 감소 추세
 - 2013년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은 총 49억 9,000만 달러 수준

19) Operační Program Podnikání a Inovace pro Konkurenceschopnost(Operational Program Enterprise and Innovation for Competitiveness)

<최근 5년간 외국인 투자유치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제조업	-1,925	-236.5	-469	24.3	1,208	357.5	2,614	116.3	661	-74.7
비제조업	4,852	-24.1	6,606	36.1	1,111	-83.1	5,368	383.4	4,331	-19.4
합계	2,927	-54.7	6,137	109.6	2,319	-63.2	7,982	244.2	4,992	-37.4

자료원: 체코 중앙은행(CNB²⁰)

*주: 음(-)의 투자액은 회수 금액을 의미함.

- 2013년 비제조업 분야의 투자 비중이 86.8%에 육박
 - 부동산, 금융업 등 서비스업 부문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제조업 비중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음.
- 구미권 및 일본기업의 투자 활발
 - Volkswagen의 Skoda 자동차 인수, IBM의 IT 서비스 센터 설립 등이 서구 기업의 주요 투자사례로 꼽힘.
 - 1990년 일본의 중·동부 유럽 투자기업은 4개에 불과했으나 2010년 기준 체코 투자진출 기업은 94개에 육박함.
 - 현지 투자진출 일본기업 중 37개사는 자동차 및 부품관련 기업이며 전기·전자 부품 분야에는 19개 기업이 투자

나. 확대되는 소비시장

□ 소비시장 현황

- 중·동부 유럽에서 높은 수준의 구매력을 보유
 - 2014년 1분기 월평균 임금은 24,806 코루나(약 918.7 유로) 수준이며 2013년 기준 1인당 GDP는 14,200 유로에 달함.
 - 소비자신뢰지수는 2012년 9월 71.8로 최근 10년간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2013년 5월 이후 반등하며 회복세를 나타냄.

20) Czech National Bank

□ 시장 특성

-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저가 제품을 선호함.
 -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대형 소매업체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판매가 활성화되는 추세

- 유통 단계는 수입/도매업자, 유통업자 및 소매상의 2~3단계로 구성
 - 마진율 체계는 수입업자 10% 도매업자 20% 소매업자 30% 수준

2. 한·중·일 진출동향 비교

가. 한국

□ 진출 및 협력현황

- 2000년대 중반부터 체코진출 본격화
 - 2005년 이후 현대자동차와 성우하이텍의 진출에 힘입어 관련 업체의 동반진출이 이어지기 시작
 - 2013년 기준 한국의 對체코 투자 총액은 11억 7,000만 달러이며(수출입은행 집계), 인센티브 수혜금액을 포함한 금액은 16억 4,000만 달러 수준(체코 중앙은행 집계)
- 對체코 투자는 2009년 이후 하락했으나 최근 반등
 - 2013년 대한항공이 체코항공 지분의 44%를 인수하고 GS칼텍스가 약 1만 2,000평 규모의 공장을 설립하는 등 대규모 투자 진행

<한국의 對체코 최근 5년간 투자금액>

(단위: 백만 달러)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94	13	12	3	118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 특징

- 제조업 투자 비중이 압도적
 - 제조업 투자액은 10억 9,000만 달러로 전체 對체코 투자의 93.2%를 차지할 정도로 동 분야에 집중됨.
- 대규모 공장건설로 제조업 투자 지속
 - 2014년 6월 넥센타이어는 11억 4,000만 달러의 투자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는 對체코 외국인 직접투자 사상 3번째로 큰 규모가 될 전망

나. 일본

□ 진출 및 협력현황

- 한·중·일 3국 중 가장 활발하게 진출
 - 투자청(Czech Invest)에 따르면 일본기업은 체코 전체투자의 16.5%를 점유하며 현재 약 95개의 제조업체가 현지에서 영업 중
 - 일본의 투자진출 핵심분야는 자동차 산업으로 2002년 Toyota가 프랑스 Citroen, Peugeot와 합작회사(TPCA) 형태로 진출한 사례가 대표적
 - 2003~2014년 사이 체코에 투자한 일본 기업은 총 69개사이며, 주요 10개사가 주도한 투자 진출 프로젝트가 총 51건으로 전체 투자 진출 프로젝트의 42% 차지
 - 다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투자가 다소 위축되었으며 2012년 Panasonic은 경영부진으로 자테츠 지역 LCD 공장을 폐쇄함.

<일본의 對체코 최근 5년간 투자금액>

(단위: 백만 달러)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16	5	-129	-195	-236

자료원: 체코 중앙은행(CNB)

*주: 순유입액 기준

- 주요 투자분야는 자동차 및 전자부품 등
 - 2002~2013년 일본의 對체코 투자 누계액은 약 33억 2,000만 달러이며, 자동차부품, 산업용 설비·공구, 전자부품, 전자제품, 금속 등 5대 투자 분야가 약 18억 7,000만 달러를 차지함.
- 주요 진출기업
 - Daikin Industries(에어컨, 공기압축기), Panasonic(PDP·LCD, 자동차 오디오), Olympus(필름·디지털 카메라), Kyocera(태양광 패널) 등

<체코 진출 주요기업>

(단위: 백만 달러)

기업명	프로젝트 수	투자금액
Toyota Motor	11	256
Daikin Industries	7	327
Panasonic(Matsuchita)	6	167
Olympus	5	40
Kyocera	5	112
Hitachi	4	207
Sony	4	43
Sumimoto Group	3	39
Oiles	3	18
Asahi Glass(AGC Group)	3	315

자료원: FDI Intelligence(2014년)

□ 특징

- 자동차 관련 진출기업들의 고른 분포
 - Toyota 외에도 Denso, Toyota Gosei, Tokai Rika, Aisin 등 일본 대형 1차 벤더들이 체코에 대거 진출
 - 한국의 1차 벤더들이 현대·기아차 공장 인근에 집중된 것과는 달리 일본 기업들은 체코 전역에 걸쳐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

다. 중국

□ 진출 및 협력현황

- 중국의 對체코 진출은 일본과 한국에 비해서 부진
 - 2013년 기준 투자 7건, 진출 기업은 5개사에 불과하여 동북아 3국 중 최저수준
 - 2005~2007년에는 투자가 증가 추세였으나 2008년 이후 감소를 기록

<중국의 對체코 최근 5년간 투자금액>

(단위: 백만 달러)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7	2	-118	44	-64

자료원: 체코 중앙은행(CNB²¹⁾)

*주: 순유입액 기준

- 한편, 대만의 對체코 투자는 25건으로 ACER, ASUS를 비롯한 전기·전자제품 제조 및 서비스 업체 위주로 진출
 - * 대만 ACER는 체코 컴퓨터 시장 점유율 12.6%로 시장 내 3위, ASUS는 점유율 7.8%로 4위
- 고위급 회담을 통해 협력 강화를 적극 추진 중
 - 체코 외무부 장관이 2014년 4월 중국을 방문한데 이어 6월에는 산업통상부 장관을 비롯한 투자청 관계자가 방중하여 5개 부처 장관 및 지역단체장들과 투자협력 강화에 합의

<체코 진출 주요기업>

기업명	진출지역	분야
Longway Czech s.r.o.	남부 보헤미아	자동차부품
Changhong Europe Electric s.r.o.	중앙 보헤미아	전기·전자
Yapp Automotive Systems s.r.o.	중앙 보헤미아	자동차부품
Shanghai Maling(Czech) a.s.	우스티 나드 라벴	식품가공
Majak-Software, spol. s.r.o.	카를로비 바리	IT·소프트웨어

자료원: 체코 투자청(Czech Invest)

21) Czech National Bank

라. 시사점

- 상호 진출 활성화로 협력증진 기대
 - 2014년 4월 유찰된 Temelin 원전 입찰 참가국으로 한국이 거론되며 6월 넥센타이어가 체코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 현대모비스 또한 모슈노프 지역에 제 2공장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
 - 또한 현지 언론에서 체코 투자청 서울지사 설립이 기대된다는 내용을 여러 차례 보도한 바 있으며 투자청은 현재 2015년 1월 개관을 목표로 지사 설립을 추진 중
- 진출 분야의 다각화 필요
 - 자동차 산업에 집중 투자한 한국과 달리 일본은 전기전자, 기계공업, 태양광 패널, 정원용 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진출하고 있음.
 - JETRO의 일본기업 334개 대상 설문결과 체코는 투자 유망지역 9위로 선정되는 등 경기호전에 따라 향후 對체코 투자가 다방면에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신규진입에 주목
 - 중국의 對체코 투자 진출은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이지만 체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및 협력을 통해 향후 양국 관계가 진전될 전망

3. 유망산업 및 참고사항

가. 투자진출 유망산업/분야

- (자동차부품) 경기호전 및 자동차 생산 증가에 따른 성장 예상
 - 체코에는 현대자동차, Skoda, TPCA 등 완성차 3사 및 글로벌 자동차 부품 1차 벤더가 다수 포진
 - * Automotive news 선정 글로벌 100대 부품기업 중 약 50개사가 체코 내 생산 공장 등 지사 보유
 - 2014년 상반기 자동차 생산은 총 63만 7,000대로 전년동기 대비 10.3% 늘어났으며 판매량 또한 4만 1,000대를 기록해 19.8% 증가
 - 2013년 현대차가 Volkswagen을 제치고 현지 판매량 2위에 등극하면서 Skoda를 위협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
 - 한국산 자동차 부품이 현지에서 호평을 받고 있어 우리 기업의 주요 투자진출 분야인 자동차 산업은 향후에도 진출이 유망한 분야
- (원전 및 기자재) 원전 건설 입찰 참여 진출분야 다각화
 - 2014년 기준 체코에는 총 6기의 원전(Dukovany 1~4기, Temelin 1,2기)이 가동 중이며 정부는 향후 50년간 원자력 발전 비중을 80~90%까지 확대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2014년 4월 체코 전력공사(CEZ22)가 기존에 진행 중이던 Temelin 원전 3,4호기 입찰 진행을 전격 취소한 이후 체코 대통령이 한국의 원전건설 신규입찰 참여에 대해 언급하는 등 우리기업의 참여가 유력한 상황
 - 2014년 6월 개최된 한-체코 원자력 포럼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체코 산업통상부와 포괄적 에너지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한국 전력과 원전관련 기자재 생산기업의 동반진출 기대
 - 가동 중인 원전 6기의 유지·보수를 위한 기자재 수요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유럽 국가 대부분이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를 계획 하고 있어 체코 진출을 계기로 인근 국가로의 진출 기회도 모색 가능

22) České Energetické Závody(Czech Energy Plants)

- (화학) 양국 간 협력을 통한 현지 진출
 - 화학 산업은 제조업의 14%를 차지하는 전통 산업으로 2014년 상반기 자동차 생산 급증에 따라 관련 화학제품 수요 상승이 예상됨.
 - 2013년 한국의 對체코 화학제품 수출은 1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8.2% 증가, 주요 수출품목인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수요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며 상호 기술협력도 기대되고 있음.

나. 진출 시 참고사항

□ 투자 인센티브

- 인센티브 정책 변경
 - 체코는 투자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법인세 면제 혜택, 신규 고용창출 보조금, 설비 투자 보조금, 입지 우대조치 등의 혜택을 제공
 - 2014년 7월 EU 투자법 지침 개정에 따라 정부는 수도 프라하를 제외한 전 지역의 투자 지원 상한선을 변경함.
 - 인센티브 지원 상한은 부지 및 건물 매입, 신규 직원고용·훈련 등의 투자비용 중 인센티브 지원이 가능한 금액의 비율을 의미함.

<신규 적용 정부 지원금 상한선 비율>

구분	프라하	기타 지역
대기업	0%	25%
중견기업	0%	35%
소기업	0%	45%

□ 유의사항

- 공공기관의 불투명한 행정
 - 국제투명성기구(TI²³)가 발표한 2013년 부패인식지수(CPI²⁴) 순위에서 체코는 177개국 중 57위에 그칠 정도로 행정 투명도가 낮은 편
 - 공공조달, 보조금 지급 관련 행정이 불투명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투자진출 시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음.

23) Transparency International

24)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V 슬로바키아

1. 투자환경 및 소비동향

가. 유럽의 물류·생산기지

□ 입지 여건

○ 우수한 기업환경지표

- World Bank에 따르면 슬로바키아는 중·동부 유럽에서 가장 우수한 기업 환경을 갖추고 있음.

<중·동부유럽 기업환경 등급 비교²⁵⁾>

순위	국가	등급
1	슬로바키아	46
2	헝가리	54
3	폴란드	55
4	체코	65
5	불가리아	66
6	루마니아	72

자료원: 슬로바키아 투자청(SARIO²⁶⁾)

○ 저임금 노동시장

- 슬로바키아의 임금 수준은 여전히 서유럽 대비 낮으며 2014년 월평균 임금은 821 유로, 최저임금은 352 유로로 중부 유럽에서도 하위권

○ 교통의 요지

-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에 따라 서유럽 국가와 루마니아 등 인근 중·동부유럽 국가를 연결하는 요충지
- 체코 국경에서 브라티슬라바를 거쳐 질리나로 이어지는 D1 고속도로와 중부를 가로지르는 R1 도로가 핵심 도로망이며 국토의 동-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2020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

25) 기업환경지표는 경제 안정성, 조세체계 등을 반영하여 1~183등급으로 나뉘며 등급이 낮을수록 양호한 환경임을 의미함.

26) Slovak Investment and Trade Development Agency

□ 투자 동향

- 자동차, 전자 등이 주요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음.
- (자동차) Volkswagen, 기아자동차, PSA 등 완성차 및 1차 벤더 다수가 진출해 있음.
- 1인당 자동차 생산량은 세계 최고수준을 기록하는 등 슬로바키아 경제를 견인하는 산업
 - * 201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자동차 102대를 생산하여 세계 1위에 등극

<현지 소재 주요 완성차 기업 및 협력업체>



- (전자) 삼성전자, Foxconn, AUO 등 아시아 기업이 TV 및 디스플레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진출함.

나. 확대되는 소비시장

□ 소비시장 현황

- 소득수준 개선에 따라 구매력도 상승 추세
 - 2013년 기준 1인당 GDP는 13,300 유로로 슬로베니아, 체코에 이어 중·동부 유럽 3위를 기록함.

□ 시장 특성

- 전반적으로 가격을 중요시하는 구매 패턴
 - 서유럽, 미국 등 선진국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도 일부 존재
- 소비재의 경우 서구 브랜드와 저가의 중국제품이 치열하게 경쟁 중
 - 한국제품의 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기아차 등 우리기업 투자가 대거 유입됨에 따라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서 국가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호재

2. 한·중·일 진출동향 비교

가. 한국

□ 진출 및 협력현황

- 슬로바키아에서는 한국의 투자진출이 돋보임.
 - 2014년 3월 기준 對슬로바키아 투자금액 누계는 11억 9,891만 달러, 법인 설립은 99건으로 한·중·일 3국 중 가장 활발한 진출을 보임.
 - 2002년 이후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생산법인과 관련 협력업체의 동반 진출이 대다수
 - 2014년 7월 양국 외교장관 면담에서 슬로바키아 외무장관은 한국이 비유럽 국가 중 가장 중요한 투자국임을 언급한 바 있음.

□ 특징

- 동반진출을 통해 자동차 생산단지 형성
 - 2004년 기아자동차가 체코 국경 인근 서북부 질리나 지역에 공장을 건설한 이후 동원금속, 한라공조, 현대모비스, 성우하이텍 등 주요 1차 벤더들이 대거 진출함.
 - 이어서 실시된 2006년 현대차의 對체코 투자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
 - * 2006년 현대차가 14억 달러를 투자하여 공장을 건설한 체코 노쇼비체는 슬로바키아 질리나에서 85km 거리에 위치해 교차생산이 가능
 - * 관련 1,2차 벤더의 동반진출이 이어지면서 현재 슬로바키아 인근지역에 현대·기아차 및 협력업체 100여 개가 진출하는 등 생산 클러스터를 형성

<한국의 對슬로바키아 최근 5년간 투자금액>

(단위: 백만 달러)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53	22	31	212	16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나. 일본

□ 진출 및 협력현황

- 전반적으로 한국에 비해 투자가 저조함.
 - 2011년 기준 일본계 제조기업은 자동차 및 전기전자 업종 중심으로 약 17개사가 슬로바키아에 진출해 있음.
 - 한국의 제조업부문 투자가 비세그라드 4개국에 골고루 분포하는 반면 일본의 對슬로바키아 투자는 對폴란드·체코 투자에 비해 미미한 편

□ 특징

- 전자기업 중심으로 진출
 - Mitsui Sumitomo, Panasonic AVC Networks, SONY, Yazaki 등이 주요 투자기업으로 꼽힘.
 - 1994년에 진출한 Yazaki는 일본계 대기업 중 슬로바키아 진출 1호로 현재 미할로프체 지역에서 3,200명 가량을 고용 중
 - SONY는 트르나바 지역에서 1996년 생산을 시작했으나 실적 악화로 지분의 90%를 대만계 기업 Foxconn에 매각한 바 있음.

<일본의 對슬로바키아 최근 5년간 투자금액>

(단위: 백만 유로)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6	41	-7	17	N/A

자료원: OECD

*주: 순유입액 기준

다. 중국

□ 진출 및 협력현황

- 중국은 아직까지 뚜렷한 투자실적이 없는 상황
 - 2007년까지 투자액이 전무했으며 2012년 말 기준 對슬로바키아 투자액은 980만 유로에 불과
 - 반면 대만의 경우 진출이 활발한 상황으로 AUO, Delta Electronics, Foxconn 등이 주요 현지 투자기업
- 대표적인 중국 투자기업인 Lenovo는 약 600명의 종업원을 고용
 - 그밖에 주요 기업은 Saar Gummi Slovakia(차량용 밀폐제), ZVL(롤러베어링), Huawei(통신장비) 등으로 파악됨.

<중국의 對슬로바키아 최근 5년간 투자금액>

(단위: 백만 유로)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5	12	25	-8	N/A

자료원: OECD

*주: 순유입액 기준

라. 시사점

- 현지 한국기업들은 슬로바키아 경제를 견인하고 있음.
 - 주슬로바키아 대사관에 따르면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슬로바키아 경제에 대한 기여도는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
 - * 2012년 기준 현지 한국기업은 슬로바키아 전체 GDP의 약 11%, 수출의 15%를 차지하며 약 2만 7,000명의 고용을 창출함.
- 슬로바키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재조명 필요
 - 상대적으로 일본과 중국의 진출이 활발하지 않은 슬로바키아에 대한 투자규모와 영향력을 확대하여 향후 유럽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 가능
 - 특히 유럽 최고 수준으로 자동차 생산이 활발하다는 점을 감안, 향후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보임.

3. 유망산업 및 참고사항

가. 투자진출 유망산업/분야

- (자동차부품) 자동차 생산 증가에 따른 성장 예상
 - 슬로바키아에는 기아자동차, PSA(Peugeot-Citroen), Volkswagen 등 완성차 3사 및 글로벌 자동차 부품 1차 벤더 다수가 존재
 - 현지 진출 글로벌 자동차부품 기업으로는 Johnson Controls, Faurecia, Magna 등이 있고 현대모비스, 한일이화 등 한국 부품업체도 2004년 기아차와 동반진출

<주요 완성차 업체 분포현황>



- 2013년 슬로바키아 자동차 생산량은 총 97만 5,000대로 전년대비 5.4% 상승했으나 판매량은 6만 6,000대에 그쳐 4.7% 하락함.
- 자동차 산업은 전체 제조업의 23.0%를 차지하는 핵심 부문으로 향후 시장성장이 예상되며 한국산 자동차부품은 현지에서 호평을 받고 있음.

나. 진출 시 참고사항

□ 투자 인센티브

○ 지역별 차등 부여

- 투자 인센티브 수혜가 가능한 분야는 제조업, 관광업, R&D 등이며 지원 자격은 지역평균 실업률을 기준으로 결정

<투자 인센티브 지원 자격>

(단위: 백만 유로, %)

구분	최소 투자비용		설비 투자비중*	순수 자본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평균 실업률 이하 지역	10	5.0	60	5.0	2.5
평균 실업률 이상 지역	5	2.5	50	2.5	1.25
평균 실업률 50% 초과 지역	3	1.5	40	1.5	0.75

자료원: 슬로바키아 투자청(SARIO)

*주: 전체 투자에서 설비 투자비용의 비중

- 전국을 3개 구역(Zone A,B,C)으로 구분하여 전체 평균대비 해당 지역의 실업률을 기준으로 설비 투자 보조금, 소득세 감면 등을 차등 지급함.
- 지원 상한선은 체코와 동일하게 토지 및 건물 구매비용, 직원고용·훈련비용 중 인센티브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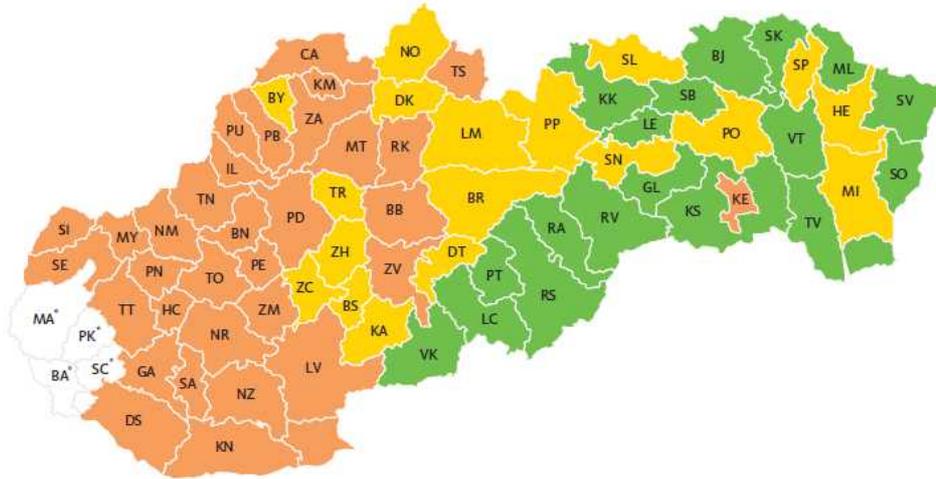
<투자 인센티브 지원 상한선>

구분	Zone A	Zone B	Zone C
지원 상한선	35%	35%	25%
현금 지원	15%	10%	-
소득세 감면	35%	35%	25%
고용지원금	6,000 유로	4,000 유로	-
무형자산이전	35%	35%	25%

자료원: 슬로바키아 투자청(SARIO)

* 주: Zone A는 국가 평균 실업률의 1.35배 이상인 지역, Zone B는 1~1.35배인 지역, Zone C는 국가 평균 실업률 이하인 지역을 의미

<투자 인센티브 지원 지역 구분>



자료원: 슬로바키아 투자청(SARIO)

* 주: 녹색이 ZONE A, 노란색 ZONE B, 주황색이 ZONE C(2014년 기준)

□ 유의사항

- 슬로바키아어 통·번역 인력 부재
 - 체코어와 달리 한-슬로바키아어 전문 번역사는 전무한 상황
 - 교민들도 슬로바키아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인력은 극소수에 불과해 현지진출 기업들이 면담 주선 시 통역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관료주의로 인한 행정 불투명성
 - 국제투명성기구의 2013년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슬로바키아는 체코보다도 4단계 낮은 61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남.
 - 시장경제체제 도입 이후에도 구 공산권 특유의 관료주의가 잔존하여 투자진출 희망 기업과 현지 교민들에게 걸림돌로 작용

2014년 KOTRA 발간자료 목록

□ GMR(Global Market Report)

번호	제목	발간일자
14-001	경제제재 완화대비, 對이란 10대 수출유망품목 및 진출방안	2014.1
14-002	2014년 1분기 KOTRA 수출선행지수	2014.1
14-003	유럽 신재생에너지시장 재편에 따른 시사점 조사 - 1편 -	2014.3
14-004	유럽 신재생에너지시장 재편에 따른 시사점 조사 - 2편 -	2014.3
14-005	유럽 신재생에너지시장 재편에 따른 시사점 조사 - 3편 -	2014.3
14-006	한미 FTA 발효 2년, 대미 수출성과 분석	2014.3
14-007	한-캐나다 FTA 15대 수출유망품목	2014.3
14-008	2014년 2분기 KOTRA 수출선행지수	2014.3
14-009	한-호주 FTA 중소기업 수출 유망품목	2014.4
14-010	유럽 경기전망 및 주요 산업별 기상도 - 1	2014.4
14-011	유럽 경기전망 및 주요 산업별 기상도 - 2	2014.4
14-012	유럽 경기전망 및 주요 산업별 기상도 - 3	2014.4
14-013	한-터키 FTA 1주년 효과분석 및 시사점	2014.4
14-014	국내외 기업의 우리나라 FTA 활용전략	2014.4
14-015	인도 신정부 경제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	2014.5
14-016	태국 정정불안에 따른 영향 및 전망	2014.5
14-017	일본기업의 최근 해외투자진출동향과 시사점	2014.6
14-018	우크라이나 대선 이후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2014.6
14-019	변화기의 쿠바, 우리기업 접근전략	2014.6
14-020	남아공 대선과 산업경제 분석을 통한 우리기업 진출 시사점	2014.6
14-021	한캐 FTA 협력 유망 4대 산업	2014.6
14-022	한-EU FTA 3주년 효과분석 및 성공사례	2014.6
14-023	러시아 환경산업 분석 및 진출 방안	2014.6
14-024	미국 시장 핵심 소비계층 공략 방안	2014.6
14-025	한-EU FTA 및 국가브랜드 관련 유럽바이어 반응조사	2014.7
14-026	2014년 3분기 KOTRA 수출선행지수	2014.7
14-027	2014년 상반기 대한 수입규제 동향과 향후 전망	2014.7
14-028	중동 EPC 기업 현황 및 협력방안	2014.7
14-029	미국의 대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경제통상 전략 분석 - 2014 미국-아프리카 정상회담 이후 전망	2014.8
14-030	비세그라드를 공략하라 - 중부유럽에서 펼쳐지는 한·중·일 삼국지	2014.8

□ KOCHI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14-001	중국을 읽는 50가지 키워드	2014.1
14-002	후베이성 자동차부품 산업현황 및 진출전략	2014.2
14-003	[중국 경제학자 초청 좌담회] 2014 중국 경제 전망	2014.2
14-004	중국 농식품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014.3
14-005	양회 이후 중국의 경제정책과 시장환경 변화: 분야별·업종별 영향과 우리의 대응	2014.4

□ KOTRA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14-003	2013 KOTRA 글로벌 CSR 종합보고서	2014.2
14-004	2014 글로벌 취업창업대전 결과보고서	2014.2
14-005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환경분야 Q&A	2014.4
14-006	2014 중국 개정 상표법 신규대조표	2014.4
14-008	2013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연차보고서	2014.5
14-009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Annual Report 2013	2014.5
14-010	EU기금을 활용한 공공 프로젝트 수주방안	2014.5
14-011	SEOUL FOOD 2014 디렉토리 책자	2014.5
14-012	UAE 매립지 프로젝트 전문가 합동조사 보고서	2014.5
14-013	2014 아시아 주요국 투자환경 비교조사	2014.5
14-014	2014 U턴기업 지원 종합가이드	2014.5
14-015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실무가이드	2014.5
14-016	러시아 에너지시스템 시장 현황	2014.5
14-017	2013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14.6
14-018	Global Green Hub Korea 2014 결과보고서	2014.6
14-019	고객만족 실천가이드	2014.6
14-020	2014 U턴기업지원가이드	2014.7
14-021	2014 외국인투자가이드	2014.7
14-022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4 요약 번역본	2014.7
14-023	SEOUL FOOD 2014 결과보고서	2014.7
14-024	러 현지기업 실태 설문조사	2014.7
14-025	2014 해외진출한국기업 디렉토리 상권 (세계편)	2014.8
14-026	2014 해외진출한국기업 디렉토리 중권 (아시아 대양주편)	2014.8
14-027	2014 해외진출한국기업 디렉토리 하권 (중국편)	2014.8

□ 설명회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14-001	2014 전략시장 협력 파트너십 포럼	2014.1
14-002	2014 글로벌 투자유치전략 설명회	2014.1
14-004	3중전회 이후 중국경제 환경변화와 대응방안	2014.1
14-005	개성공단 입주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설명회	2014.3
14-006	韓中服務産業优秀企業投資交流會	2014.3
14-007	중국 개혁개방 2.0시대 - 유망 서비스시장 진출방안 설명회	2014.3
14-008	아프리카 중소형 플랜트 협력 포럼	2014.3
14-009	양회 이후 중국경제 환경변화와 대응방안 설명회	2014.4
14-010	(서울식품전 연계) 한중 식품산업 전략적 투자유치설명회	2014.5
14-011	2014 Global Project Plaza	2014.5
14-012	미국 온라인 유통망 진출전략 설명회	2014.5
14-013	쿠바 투자환경 설명회	2014.5
14-014	2014 국제개발은행(MDB) 조달 설명회	2014.6
14-015	미국 이전가격 세무조사 동향과 대응방안 설명회	2014.6
14-016	Europe Business Week 2014 설명회	2014.6
14-017	중국시장 IP보호, 리스크와 기회	2014.6
14-018	한국투자환경 설명회	2014.7
14-019	제 16차 해외수주협의회 수요포럼	2014.7



작성자	
◆ 바르샤바무역관	박 민 과장
◆ 부다페스트무역관	양효준 과장
◆ 프라하무역관	이강재 과장
◆ 선진시장팀	이연주 과장
◆ 선진시장팀	이동훈 대리



Global Market Report 14-030

비셰그라드를 공략하라

- 중부유럽에서 펼쳐지는 한·중·일 삼국지 -

발 행 인 □ 오 영 호
편 집 인 □ 김 성 수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4년 8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 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www.globalwindow.org
